

하인리히 쉬츠

위키백과 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.

하인리히 쉬츠(Heinrich Schütz, 1585년 8월 8일 ~ 1672년 11월 6일)은 독일의 교회음악가이다. 바하보다 100년 앞선 독일에 중요한 작곡가이며, 클라우디아 몬테베르디와 함께 17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꼽힌다. 1627년 토르가우에서 초연된 독일 최초의 오페라인 다프네를 쓴 것으로 여겨진다.

많은 시편곡, 마태수난곡, 누가 수난곡, 아카펠라 교회음악을 남겼다. 이때의 시편곡들은 거의 칸조날화성이라고 교회선법을 많이 사용했다.

원본 주소

'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D%95%98%EC%9D%B8%EB%A6%AC%ED%9E%88_%EC%89%AC%EC%B8%A0'

분류들: 1585년 태어남 | 1672년 죽음 | 독일의 작곡가

- 이 문서는 2009년 3월 4일 (수) 21:21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.
-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-동일조건변경허락 3.0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이용 규칙을 참고하십시오.
Wikipedia®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, Wikimedia Foundation, Inc. 소유의 등록 상표입니다.